

< 제31회 감정평가사 회계학 정답 및 해설(A형)>

41. ②

중요성은 기업 특유 관점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하므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42. ⑤

43. ③

- 1) 20x1년 1월 1일 건물의 취득원가 = \$5,000 X ₩1,800 = ₩9,000,000
- 2) 20x1년 12월 31일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9,000,000 - (₩9,000,000 X 1/5) = ₩7,200,000
- 3)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치 = \$6,000 X ₩1,500 = ₩9,000,000
- 4) 20x1년 말 재평가잉여금 = ₩9,000,000(공정가치) - ₩7,200,000(장부금액) = ₩1,800,000

44. ③

- 1) 무이자부 어음일 경우 처분손실(A) = ₩1,200,000 X 12% X 1/12 = ₩12,000
- 2) 이자부어음일 경우 처분손실(B)  
    만기금액 = ₩1,200,000 + ₩1,200,000 X 9% X 4/12 = ₩1,236,000  
    할인액 = ₩1,236,000 X 12% X 1/12 = ₩12,360  
    현금수령액 = ₩1,236,000 - ₩12,360 = ₩1,223,640  
    처분손실 = ₩1,223,640(현금수령액) - ₩1,227,000(할인일의 어음가치) = (₩3,360)

45. ①

- 1)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 적용시 20x1년도 당기순이익 = (₩200,000) 감소
- 2) 원가모형 적용시 20x1년도 당기순이익 = (₩180,000) 감소  
    ->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당기순이익 ₩20,000 증가

46. ④

- 1) 20x1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1,600,000 - (₩1,600,000 X 1/4) = ₩1,200,000
- 2)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690,000), 사용가치(₩706,304)] = ₩706,304  
    \* 사용가치는 계속사용에 따른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 20x1년 말 사용가치 = ₩300,000 X 2.4018 - ₩20,000(철거비) X 0.7118 = ₩706,304
- 3) 20x1년 손상차손 = ₩1,200,000 - ₩706,304 = ₩493,696

47. ⑤

- 1) 20x1년도 환경설비 취득원가 = ₩5,000,000 + ₩124,180(복구충당부채) = ₩5,124,180

- \* 20x1년 초 복구충당부채 = ₩200,000 X 0.6209(5기간, 10%, 현가) = ₩124,180
- 2) 20x1년 말 환경설비 장부금액 = ₩5,124,180 - (₩5,124,180 X 1/5) = ₩4,099,344
- 3) 20x1년 말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 = ₩124,180 + ₩12,418 = ₩136,598
- 4) 20x2년 초 새로 추정된 복구충당부채 = ₩300,000 X 0.6355(4기간, 12%, 현가) = ₩190,650
- 5) 복구충당부채 증가금액 = ₩190,650 - ₩136,598 = ₩54,052  
-> 관련 의무가 증가하였으므로 환경설비 장부금액에 ₩54,052를 증가시킨다.
- 6) 20x2년도 총비용
  - 감가상각비 = (₩4,099,344 + ₩54,052) X 1/4 = ₩1,038,349
  -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 ₩190,650 X 12% = ₩22,878
  - 20x2년도 총비용 = ₩1,038,349 + ₩22,878 = ₩1,061,227

48. ②

회사가 유지, 관리하는 상하수도 공사비나 내용연수가 영구적이지 않은 배수공사비용 및 조경공사비용은 토지가 아닌 별도자산으로 인식한다.

49. ②

재고자산감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하므로 판매가능재고에서 차감할 기말재고는 저가재고이다.

저가재고(₩4,000) = 실제수량 X ₩80(순실현가능가치)

-> 실제수량 = 50개

50. ①

\* 개발비의 원가는 인식기준 충족 이후 지출분의 합계이다.

1) 20x3년 1월 1일 개발비의 원가 = ₩500,000 + ₩400,000 = ₩900,000

2) 20x3년 개발비 상각액 = ₩900,000 X 1/4 = ₩225,000

51. ①

1)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12%) = ₩1,000,000 X 0.7118 + ₩100,000 X 2.4018 = ₩951,980

2)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13%) = ₩1,000,000 X 0.6931 + ₩100,000 X 2.3612 = ₩929,220

3) 사채발행비 = ₩951,980 - ₩929,220 = ₩22,760

52. ⑤

해당 문제는 순확정급여부채로 체시를 하였기 때문에 부채를 증가시키면 +로 가산하고, 자산을 증가시키면 -로 가감하여야 한다.

1) 20x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 = ₩20,000(기초 순확정급여부채) + ₩1,200(순이자) + ₩85,000(당기근무원가) - ₩60,000(사외적립자산) + ₩2,800(재측정요소 순액) = ₩49,000

\*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한 현금은 부채와 자산에 동일한 금액이 반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확정급여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퇴직급여관련비용 = ₩1,200(순이자) + ₩85,000(당기근무원가) = ₩86,200

53. ①

1) 주식선택권 행사시 분개

(차) 현금                   갯수 X ₩7,000(행사가격)   (대) 자본금   수량 X ₩5,000(액면금액)  
      주식선택권   갯수 X ₩1,000(공정가)            주식발행초과금            ?

-> 주식발행초과금 = 수량 X ₩3,000  
                      = 35명 X 10개 X 60% X ₩3,000 = ₩630,000

54. ②

20x1.1.1	(차) 현금	100,000	(대) 계약부채	100,000
20x1.12.31	(차) 이자비용	10,000	(대) 계약부채	10,000
20x2.12.31	(차) 이자비용	11,000	(대) 계약부채	11,000
	(차) 계약부채	121,000	(대) 매출	121,000

55. ①

1) 대안 I의 회계처리

-> 해당 거래로 부채는 ₩25,000 감소하며, 자본은 ₩5,000 감소한다.  
      거래 이후 부채비율 = ₩55,000 / ₩15,000 = 약 367%로 부채비율이 감소한다.

(차) 현금	25,000	(대) 토지	30,000
처분손실	5,000		
(차) 차입금	25,000	(대) 현금	25,000

56. ②

자기주식의 소각, 주식배당, 무상증자는 자본총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부채비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15,000에 처분시 부채총계는 변화하지 않지만 자본총계는 자기주식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 만큼 증가하므로 ₩750,000 증가한다.

-> 20x2년 초 부채비율 200% = ₩6,000,000(부채총계) / ₩3,000,000(주주지분)  
      해당거래 후 부채비율 = ₩6,000,000 / ₩3,750,000 = 160%

2) 보통주를 유상증자 하는 경우도 자본총계가 증가하지만 ₩6,000,000 / ₩3,500,000 = 약 171%가 된다.

57. ③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공정가치 = ₩100,000 X 0.7350 = ₩73,50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000을 차입하였으므로 공정가치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이 정부보조금이 된다. 정부보조금은 ₩26,500이다.

2) 20x1년 말 장부금액 = ₩100,000 - ₩25,000(감가상각누계액) - ₩19,875(정부보조금잔액) = ₩55,125

58. ④

- 1) 20x1년 말 장부금액 = ₩1,000,000 X 4/5 = ₩800,000
- 2) 20x2년 감가상각비 = (₩800,000 + ₩325,000) X 2/6(이중채감법) = ₩375,000  
-> 20x2년 말 장부금액 = ₩750,000
- 3) 20x3년 초 처분시 수취한 현금 = ₩750,000 + ₩10,000(처분이익) = ₩760,000

59. ④

고정리스료는 리스제공자가 결정한다. 해당 문제에서는 리스이용자인 (주)감평의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리스료 결정에 반영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이므로 해당 부분을 잘 구분하여야 한다.

- 1) 기계장치 공정가(₩1,000,000)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W0) = 고정리스료 X 3.1699(4기간, 10%, 연금현재가계수) + ₩400,000(매수선택권 행사가격) X 0.6830  
-> 고정리스료 = ₩229,282

60. ④

- 1) 20x1년 초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이연하여 판매한 매출의 매출채권 = ₩40,000 X 2.7232 = ₩108,928  
-> 20x1년 말 매출채권 장부금액 = ₩108,928 X 1.05 - ₩40,000 = ₩74,374  
-> 20x2년도 이자수익 = ₩74,374 X 5% = ₩3,719
- 2) 해당 거래는 재구매조건부 판매로 풋옵션 행사가 유의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20x1년 12월 1일에는 매출이 아닌 차입거래로 인식한다.

20x1.12.1	(차) 현금	120,000	(대) 차입금	120,000
20x1.12.31	(차) 이자비용	2,500	(대) 차입금	2,500
20x2.1.31	(차) 이자비용	2,500	(대) 차입금	2,500
	(차) 차입금	125,000	(대) 매출	125,000
	(차) 매출원가	50,000	(대) 상품	50,000

-> 재구매조건부 판매시 ₩120,000과 ₩125,000과의 차이금액은 이자비용이 되며,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되었기 때문에 소멸된 20x2년도에 매출을 인식한다.

- 3) 20x2년 총수익 = ₩3,719(이자수익) + ₩125,000(매출) = ₩128,719

61. ②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과 영업활동순현금흐름과의 차이는 이자지급과 법인세지급액을 직접법으로 계산하여 별도로 표기함에 따른 것이다.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100,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500(감가상각비) + ₩2,700(이자비용은 직접법으로 산출하기 위해 제거한다.) - ₩700(사채상환이익) - ₩4,800(매출채권 증가) + ₩2,500(재고자산 감소) + ₩3,500(매입채무 증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5,300

- 2)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100,000(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700(이자지급액) - ₩6,000(법인세지급액) = ₩92,300

- 3) 직접법 방식으로 산출한 이자지급액과 법인세지급액

이자비용	(₩2,700)	법인세비용	(₩4,000)
------	----------	-------	----------

미지급이자 증가	1,000	미지급법인세감소	(2,000)
이자지급액(현금)	(₩1,700)	법인세지급액(현금)	(₩6,000)

62. ④

- 1) 당기법인세 = [₩490,000(회계이익) + ₩125,000(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60,000(접대비한도초과액) - ₩25,000(미수이자)] X 20% = ₩130,000
- 2) 이연법인세자산 = ₩125,000(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X 20% = ₩25,000  
이연법인세부채 = ₩25,000(미수이자) X 20% = ₩5,000
- 3) 법인세회계

(차) 이연법인세자산	25,000	(대) 당기법인세부채	130,000
법인세비용	110,000	이연법인세부채	5,000

63. ④

- 1)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이므로 500주(공정가치 발행분)와 1,300주(무상증자 요소)를 분리하여 1,300주는 기초유통주식수인 12,000주와 7월 1일 공정가치발행분 500주에게 안분해야 한다.  
- 기초유통주식수에 안분할 무상증자 요소 = 1,300주 X (12,000/12,500) = 1,248주  
- 7월 1일 유상증자 주식에 안분할 무상증자 요소 = 1,300주 - 1,248주 = 52주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3,248주 X 12/12 + 552주 X 6/12 - 1,800주 X 3/12 = 13,074주
- 3) 당기순이익 = 13,074주 X ₩900(기본주당순이익) = ₩11,766,600

64. ②

(차) 감가상각누계액	340,000	(대) 감평의 기계장치	800,000
기계장치	470,000	현금	?
처분손실	10,000		

-> 현금 = ₩20,000

65. ④

- 1) 20x1년 1월 1일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부분재무상태표

부분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전환사채	100,000
	상환할증금	5,348
	<u>전환권조정</u>	<u>(11,414)</u>
	장부금액	₩93,934
	자본	
<u>전환권대가</u>	<u>₩6,066</u>	

- 2) 20x2년 초 부채요소의 장부금액 = ₩93,934 + ₩3,087(전환권조정 상각액) = ₩97,021

3) 20x2년 전환사채 행사시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  
 = ₩97,021 X 60% - 자본금 + 전환권대가 대체액  
 = ₩58,213 - (60주 X ₩500) + ₩6,066 X 60% = ₩31,853

66. ③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상 재고 - 실사재고  
 = ₩250,000 - (800개 X ₩100 + 250개 X ₩180 + 400개 X ₩250)  
 = ₩25,000

67. ④

- 1) 20x1년 말 재평가잉여금 = ₩850,000(공정가치) - ₩800,000(장부금액) = ₩50,000  
 \* 20x1년도는 회수가능액이 ₩900,000이므로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 2) 20x2년 말 손상인식 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850,000 - (₩850,000 X 1/4) = ₩637,500  
 -> 재평가잉여금 ₩50,000을 모두 상각하고도 손상차손이 ₩12,500 발생하였으므로 회수가능액은 ₩637,500 - ₩62,500 = ₩575,000이다. 순공정가치는 ₩568,000으로 회수가능액보다 작기 때문에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로 결정되었고 사용가치는 ₩575,000임을 알 수 있다.

68. ③

- 1) 20x1년 초 AC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 ₩2,000,000 x 0.7938 + ₩80,000 x 2.5771 = ₩1,793,768
- 2) 20x1년 초 건물의 취득가액 = ₩10,000,000 + ₩206,232(공채 부수취득에 따른 차액) = ₩10,206,232
- 3) 20x1년 말 건물의 감가상각비 = ₩10,206,232 X 1/10 = ₩1,020,623
- 4) 20x1년 말 AC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1,793,768 X 8% = ₩143,501
- 5)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1,020,623) + ₩143,501 = (₩877,122) 감소

69. ③

20x1.10.1	(차) 감가상각비	18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
	(차) 감가상각누계액	180,000	(대) 건물	2,400,000
	투자부동산	2,300,000	재평가잉여금	80,000
20x1.12.31	(차) 투자부동산평가손실	250,000	(대) 투자부동산	250,000

->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180,000) + (₩250,000) = (₩430,000) 감소  
 -> 20x1년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 ₩80,000(재평가잉여금) 증가

70. ⑤

- 투자채무상품은 AC로 분류하나 FVOCI로 분류하나 처분손익은 동일하다.
- 1) 20x1년 말 AC금융자산 장부금액 = ₩896,884 X 1.08 - ₩40,000 = ₩928,635
- 2) 20x2년 초 AC금융자산 처분이익 = ₩940,000 - ₩928,635 = ₩11,365증가



75. ⑤

능률차이(W60,000) = 실제시간 X ₩12(표준임률) > 25,000단위 X 2시간 X ₩12  
 -> 실제시간 = 55,000시간

76. ①

1)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W352,000) + 기말제품재고액의 차이 - 기초제품재고액의 차이 (W20,000) =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W374,000)  
 -> 기말제품재고액의 차이 = ₩42,000  
 2)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보다 ₩42,000 작으므로 ₩78,000 - ₩42,000 = ₩36,000

77. ⑤

1) 손익분기점 매출액 = ₩90,000 / 30%(공헌이익률) = ₩300,000  
 2) 세후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매출액 = (₩90,000 + ₩60,000(세전이익)) / 30%  
 -> 세후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매출액 = ₩500,000  
 3) 안전한계 = ₩500,000 - ₩300,000(손익분기점 매출액) = ₩200,000

78. ③

1) 4월의 현금유입액 = ₩700,000 X 80% + ₩800,000 X 20% = ₩720,000  
 4월의 매입유출액 = ₩500,000 X 60% + ₩600,000 X 40% = ₩540,000  
 2) 4월의 현금잔액 = ₩450,000(기초잔액) + ₩720,000(유입액) - ₩540,000(매입에 따른 유출액) - ₩20,000(급여) - ₩10,000(임차료) = ₩600,000  
 \*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차감해서는 안된다.

79. ④

구분	단위당 시간	총시간
10단위(1)	150시간	150시간
20단위(2)	150시간 X 90% = 135시간	270시간
40단위(4)	135시간 X 90% = 121.5시간	486시간

-> 추가로 30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직접노무시간 = 486시간 - 150시간 = 336시간  
 -> 직접노무원가 = 336시간 X ₩1,200 = ₩403,200

80. ③

증분수익 : 변동제조원가 절감액(2,000단위 X ₩750) ₩1,50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절감액(₩800,000 X 20%) 160,000  
 임대수익 200,000  
 증분비용 : 외부구입액(2,000단위 X ₩900) (₩1,800,000)  
 증분이익 : ₩60,000

### < 2020년 31회 감정평가사 회계학 총평 >

2020년 31회 감정평가사 회계학은 기존의 어떤 기출문제보다도 계산문제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계산문제 또한 정답 도출과정에 불필요한 자료를 추가하여 혼동을 주기도 하고,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찾아 답을 도출해야 하는 등의 응용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시험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1회 감정평가사 회계학은 문제 자체로는 기존 기출문제의 고정적인 틀을 깨고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회계학이 1차에만 출제가 되는 과목이고 이론상 1문제에 1분 남짓을 배분해야 하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에만 신경을 쓴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고려한 문제구성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회계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 단답식의 말문제 구성은 늘리고 필요한 자료는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는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31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결과가 나와야 조금 더 확실해 지겠지만 회계학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여 1차 합격인원을 조정하였다면, 앞으로도 응시인원이 늘어남과 비례하여 회계학 문제는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2회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계학을 짧은 기간에 과락만 면한다는 방식의 학습방법 보다는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회계의 감을 잃지 않는 형태로 길게 공부해야 하며, 이에 맞추어 강의 진행도 한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갈래의 문제를 가능한 많이 알려드리는 형태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시험의 연기와 어려운 회계학 문제로 인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득하지 못한 수험생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요인이니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수험생활을 경험하였으니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의신청을 할 만한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